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발레의 역사



문 훈 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발레의 탄생

발레는 르네상스시대에 이탈리아의 궁정 연회에서 탄생하였다. '발레'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춤추다'라는 의미로 무도장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Ballo'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발레는 춤이 아닌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도장에서 행진을 하던 것에 불과했지만 왕실과 귀족이 그들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 즐겼던 사교춤으로 때로는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후원을 통해 이탈리아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메디치 가문은 딸인 캐서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를 열네 살의 어린 나이에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와 결혼시키며 발레를

프랑스에 소개했다. 그 후 1617년 루이 13세는 열 여섯 살의 어린 나이에 본인이 직접 안무하여 발레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때가 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발레를 만든 사람

은 루이 14세이다. 발레를 매우 사랑한 그는 매일 다섯 시간씩 연습하여 발레 작품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는데 〈밤의 발레〉라는 작품에서 태양으로 등장하여 '태양왕'이라는 별칭을 가진다. 그는 발레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661년 최초의 전문 발레 학교인 왕립무용학교를 만들고 이때 발레의 기본 동작이 정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레 용어가 불어로 통용된다. 이 왕립무용학교는 오늘날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 발레 학교와 파리 오페라 발레단으로 발전되어 뿌리 깊은 전통과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즉, 루이 14세를 통해 귀족이 춤추는 아마추어 시대가 끝나고 전문무용수가 배출되고 극장이 생겨나면서 대중을 위한 발레로 발전하기 시작한 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발레 하면 러시아를 떠올리는 이유는 바로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오페라의 인기가 상승하고 발레의 인기가 저물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는 서구화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의 모든 문화를 수입하면서 발레도 들어온다. 이로써 발레의 중심지가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최고 무용수들과 지도교사들도 러시아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 출신의 안무가 마리위스 프티파이다.

그는 1862년 러시아 황실발레단의 안무가로 활동하면서 40년간 러시아 발레를 최일선에서 이끌었는데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 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와 함께 많은 명작 발레를 만들며 웅장하고 화려한 러시아의 고전 발레를 확립하였다. 발레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백조의 호수〉, 러시아 발레의 아카데미한 스타일과 화려함을 갖추어 고전 발레의 교과서라 불리는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크리스마스를 배



태양왕 루이 14세 〈밤의 발레 (Ballet de la nuit)〉(1653)

경으로 한 연말 가족 발레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호두까기인형>, 스페인의 열정 넘치는 희극 발레 <돈키호테>, 인도를 배경으로 한 대형 드라마 발레 <라 바야데르>와 같은 클래식 명작 발레가 바로 마리위스 프티파의 손에 의해 러시아에서 탄생하여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레 명작이다.

발레는 치마 길이가 짧아진 역사

발레는 400년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데 이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무용수의 신발이다. 왕실에서 시작된 발레는 여성이 아닌 왕과 남성 중심이었지만 낭만 시대에 발레리나들이 발끝에 서면서 여성 무용수가 발레 무대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이때 여성 무용수들은 보다 더 가벼워 보이고 마치 날아다니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뒤꿈치를 올리다가 끝내 발끝 위에 올라서게 된다. 초기에는 특수한 신발이 없이 순간적으로 올라서고 내려오는 것에 불과했지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동작은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발레리나 마리 탈리오니가 <라 실피드>라는 작품에서 토 슈즈(Toe Shoes)를 신으며 완벽한 가벼움과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줌으로써 단숨에 우상화되어 애호가들은 그녀를 숭배하고 심지어 어떤 애호가는 그녀의 토슈즈를 구워 먹기도 했다는 얘기도 전해져 내려온다.

토 슈즈 이상으로 발레의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발레리나가 입는 의상 튜튀(Tutu)이다. 발레의 역사는 치마 길이가 짧아진 기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치마 길이만으로 고전 발레, 낭만 발레, 신 고전 발레를 구분할 수 있다. 18세기 이탈리아 발레리나 마리 카마르고는 당시 무대에서 절대로 발목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어기고 치렁치렁한 치마를 과감히 발목 위의 길이로 잘라 여성 무용수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의상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 번 짧아지기 시작한 치마 길이는 걷잡을 수 없이 짧아지며 낭만주의 시절에는 종아리까지 오는 길이의 종 모양 치마인 로맨틱 튜튀로 발전되고 그 후 무릎 밑까지 오는 세미 로맨틱 튜튀, 그리고 다리 전체가 드러나는 클래식 튜튀로 탄생된다. 이 클래식 튜튀는 다리가 완전히 드러나고 작은 실수와 결점까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다리가



마리 카마르고 Marie Camargo

예쁘지 않으면 입기 부담스러운 의상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다리가 치렁치렁한 스커트 자락 밑에 갇혀 있었다면 발레를 천상의 춤으로 격상시킨 화려하고 환상적인 발 동작은 개발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필자 소개

미국 워싱턴발레단 솔리스트, 한국무용협회 이사,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이사, 한국발레협회 이사,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유니버설발레단 이사장, USA 국제발레콩쿠르, 잭슨콩쿠르 심사위원 등 역임

수상 경력

1996년 제1회 한국발레협회상 프리마 발레리나상
1999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무용부문)
2009년 한국발레협회 대상
2010년 화관문화훈장
2014년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등 다수

주요 작품

1989년 지젤(러시아 키로프발레단)
1995년 백조의 호수(루마니아 국립발레단, 키로프발레단)
1997년 돈키호테(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1997~1998년 호두까기인형(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1999년 지젤(리틀엔젤스 예술회관)
1999년 창작발레 '심청'(리틀엔젤스 예술회관) 등 다수